

이것은 '연기'인가 '신화'인가 류승룡 '1천만 영화' 4편 배출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 누적 관객 1200만명 넘어서 안방극장서도 맹활약

배우 류승룡(49)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가 주연한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은 지난 9일 기준 누적 관객 1200만명을 넘어섰다.

류승룡은 해체위기의 막대한 반장이자, 통닭집 사장의 애환을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로 표현해 '극한직업' 흥행을 이끌었다.

그가 극 중 율조리대 내뱉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라는 대사는 SNS와 광고에서 각종 패러디를 낳으며 유행어가 됐다. 영화 개봉 전 만난 류승룡은 "대본 연습을 할 때부터 저절로 그처럼 잊었다"고 말했다.

'극한직업'은 그가 출연한 역대 코미디 영화 흥행 1위작 '7번방의 선물'(1천281만명) 기록을 갱신했다.

류승룡은 코미디 영화 2편을 포함해 '명량'(1761만명), '평해, 왕이 된 남자'(1232만명)까지 총 4편의 1천만 영화를 배출했다.

그의 활약은 스크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류승룡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좀비 사극 '킹덤'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왕세자 이창과 대립하는 조화주 역을 맡았다. 약역이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호평받았다. 이달 초에는 EBS 다큐멘터리 '류승룡의 백두대간 문화유산 답사기'로 시청자들을 만났다.

류승룡은 사실 영화계에서 늦게 만개한 배우다. 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인 그는 한국형 뮤지컬 퍼포먼스의 대명사가 된 '난



류승룡이 주연한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이 누적 관객 1200만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타'에 초기부터 참여해 5년간 함께했다.

공연과 연극 무대를 누비다 영화로 옮긴 뒤에는 주로 조연을 맡다가 40대에 접어들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최종병기 활'(2011),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7번방의 선물'(2013), '명량'(2014) 등을 잇따라 흥행 시키며 충무로 캐스팅 1순위 배우로 떠올랐다.

차진 말맛 개그부터 슬랩스틱 코미디까지 코믹 연기는 물론 진중한 사극과 정통 드라마 연기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인생에는 늘 부침이 있는 법. 뒤늦게 정점에 오른 만큼 뒷발도 뒤따랐다. 2014년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예전 공연 무대를 함께한 동료의 발언 이후 류승룡은 세간의 '오해'로 한동안 마음고생을 겪어

야 했다. 공교롭게 그때 이후 연타석 흥행 행진도 멈췄다. 영화 '손님'(2015)과 '도리화기'(2015), '염력'(2018), '7년의 밤'(2018) 등 근작에선 흥행 실패를 봤다.

그런 시간을 겪은 덕분일까. 수년 전 슬과 담배를 끊고 다도를 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은 류승룡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한 것 같다"며 "때로는 되돌아보고 심필요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잘 쉬어야 양질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편해야 보는 사람도 편합니다. 웬만하면 다툼을 만들지 말고, 잘못하면 사과를 하고, 더불어 평안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가 여러 부침을 겪은 끝에 얻은 교훈이다. /연합뉴스



코믹 연기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배우 류승룡. /연합뉴스



5·18 다룬 광주MBC 다큐멘터리 '두 개의 일기' '뉴욕 TV&필름 페스티벌' 인권부문 결선 진출

5·18광주민중화운동을 다룬 광주MBC 다큐멘터리 '두 개의 일기'(사진)가 '뉴욕 TV&필름 페스티벌' 인권부문 결선에 진출했다.

오는 4월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텔레비전&필름 어워드'에서 수상작이 발표되는 '뉴욕 TV&필름 페스티벌'은 반프상, 국제에미상과 함께 세계 3대 TV상으로 꼽히는 62년 전통의 시상식이다. '두 개의 일기'가 결선 진출한 인권부문에는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중국, 카타르 등 9개국 11개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5월 방영된 이 작품은 박수인 기자가 기획하고 김철원 기자가 연출을 맡았으며 박재욱(촬영), 유희경(구성) 씨가 참여했다.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전두환 신군부의 불의에 맞선 윤상원 열사와 70년대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전태일 열사 등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두 인물의 밀접한 관계를 일기를 통해 밝혀낸 프로그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서형·오나라 출연 '아는형님' 시청률 9.5% 자체 최고

JTBC 예능 '아는형님'도 비지상과역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SKY 캐슬' 효과를 톡톡히 봤다.

1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방송한 '아는형님' 시청률은 9.585%(유료가구)를 기록하며 'SKY 캐슬'의 김서형과 오나라가 출연한 덕분에 프로그램 자체 최고 성적을 썼다. 종전 최고 기록은 8.99%였다.

전날 방송에는 'SKY 캐슬'의 카리스마 '썬앵' 김주영 역 김서형과, 사랑스러운 '전전' 진진희 역 오나라가 게스트

로 나서 입담을 과시했다. 특히 김서형은 드라마 '아내의 유혹' 신애리 캐릭터 이후 가장 강렬한 역할을 맡았다는 평에 대해 "당시에도 신애리 연기가 너무 세서 다른 걸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썬앵"만 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춤 실력을 공개하기도 했다.

오나라 역시 발랄한 매력으로 춤, 노래 등을 선보였으며 특히 대학교 후배들과 함께한 치어리딩 무대를 완벽하게 꾸며 눈길을 끌었다.

김서형은 "아는형님"이 시청률 9.5%를 기록하며 'SKY 캐슬'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월화미니시리즈 아이템 0회 : 아이템 연박상(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 죄와 벌(재)	50 기억, 록 100년을 탐험하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MBC네트워크특선 <살처분, 신화의 종말>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 특집토론회 충선 1년 앞으로, 설민심은?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새만금 표류기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뿌까 55 뽀빠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방학특선 다큐멘터리 장벽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15 문자방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공연 하나 된 열정, 평화와 변명으로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00 윈손잡이 아내	10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건강문庫 남도에 살러리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브24 55 제보자들	55 차츰우물 전국 유망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홍범도>			
10	00 가요무대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40회 특집 안영하세요	10 창사특집 UHD 다큐멘터리 <곰>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아이템(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5:30 세계건강특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배워서 남줄렘(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몬카트(재)	<당신이 꿈꾸는 그 곳 콜롬비아 1부 살은 축제다 칼리 살사축제>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한반도 평화기행 -금강산 가는 길, 양구>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우리는 비트로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뚝딱맨	23:55 배워서 남줄렘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4:50 세계의 드라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다른 것은 분류하고 비슷한 것은 모으자. 48년생 진행하기 보다는 잠시 정지해 있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60년생 흥왕의 기운을 함께 나눌 것이다. 72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할 수 있다. 84년생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사시킴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33</p>	<p>午 42년생 이상이 없으니 힘차게 추진해도 된다. 54년생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조성된다. 66년생 조금만 유의한다면 미흡한 점을 찾아낼 수 있다. 78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이니 빨리 청산 하자. 90년생 막연한 집착은 행복자수를 하락 시킨다. 행운의 숫자 : 68, 37</p>
<p>丑 37년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49년생 양호한 기반이 원만한 전개를 담보한다. 61년생 파생된 결과는 미래에 대한 교두보가 되겠다. 73년생 처음에는 어려워나 점점 쉬워질 것이다. 85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7, 95</p>	<p>未 43년생 느낌만으로 판단한다면 오류를 범한다. 55년생 확신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67년생 능력과 열정에 좌우 되는 국세이니 상대적으로 수밖에 없다. 79년생 획일적이라면 곤란하다. 91년생 이면의 실체를 알고 나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69</p>
<p>寅 38년생 모순점을 해결한 후에 조치할 일이다. 50년생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62년생 부담스럽다면 거부해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 74년생 과욕 한다던 필히 근심이 생기기라. 86년생 대어는 다 놓치고 피라미에 집착하고 있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33, 67</p>	<p>申 44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56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8년생 철저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80년생 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줄줄 새고 있으니라. 92년생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94, 85</p>
<p>卯 39년생 이미 따 놓은 당상이니 하등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51년생 참예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63년생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아니 되니라. 76년생 열린 마음이 발전을 이끌 것이다. 87년생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자. 행운의 숫자 : 90, 50</p>	<p>酉 45년생 고비를 넘기고 나면 행복이 깃들 것이다. 57년생 성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69년생 먼 안목으로 내다 보는 예지가 수반 된다면 훌륭한 구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희망적이나. 93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8, 36</p>
<p>辰 40년생 세심하지 않으면 깊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52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64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회복할 수 있다. 76년생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니 박차를 가하라. 88년생 지나치다 보면 모순이 따를 수다. 행운의 숫자 : 24, 84</p>	<p>戌 34년생 어떤 면을 살펴보다도 무용하니 전혀 미련을 들 필요가 없다. 46년생 편견을 가진다면 단차가 생긴다. 58년생 신속한 대응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70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라. 82년생 가급적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행운의 숫자 : 03, 76</p>
<p>巳 41년생 대중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53년생 두루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65년생 평상시에 바라고 있었던 마음가짐으로 판단해야 틀림없었다. 77년생 뜻밖의 이익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운수다. 89년생 기존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6, 82</p>	<p>亥 35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47년생 실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9년생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만 한다. 71년생 변화를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쁜 국면을 연출한다. 83년생 확실한 안전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나. 행운의 숫자 : 86, 83</p>